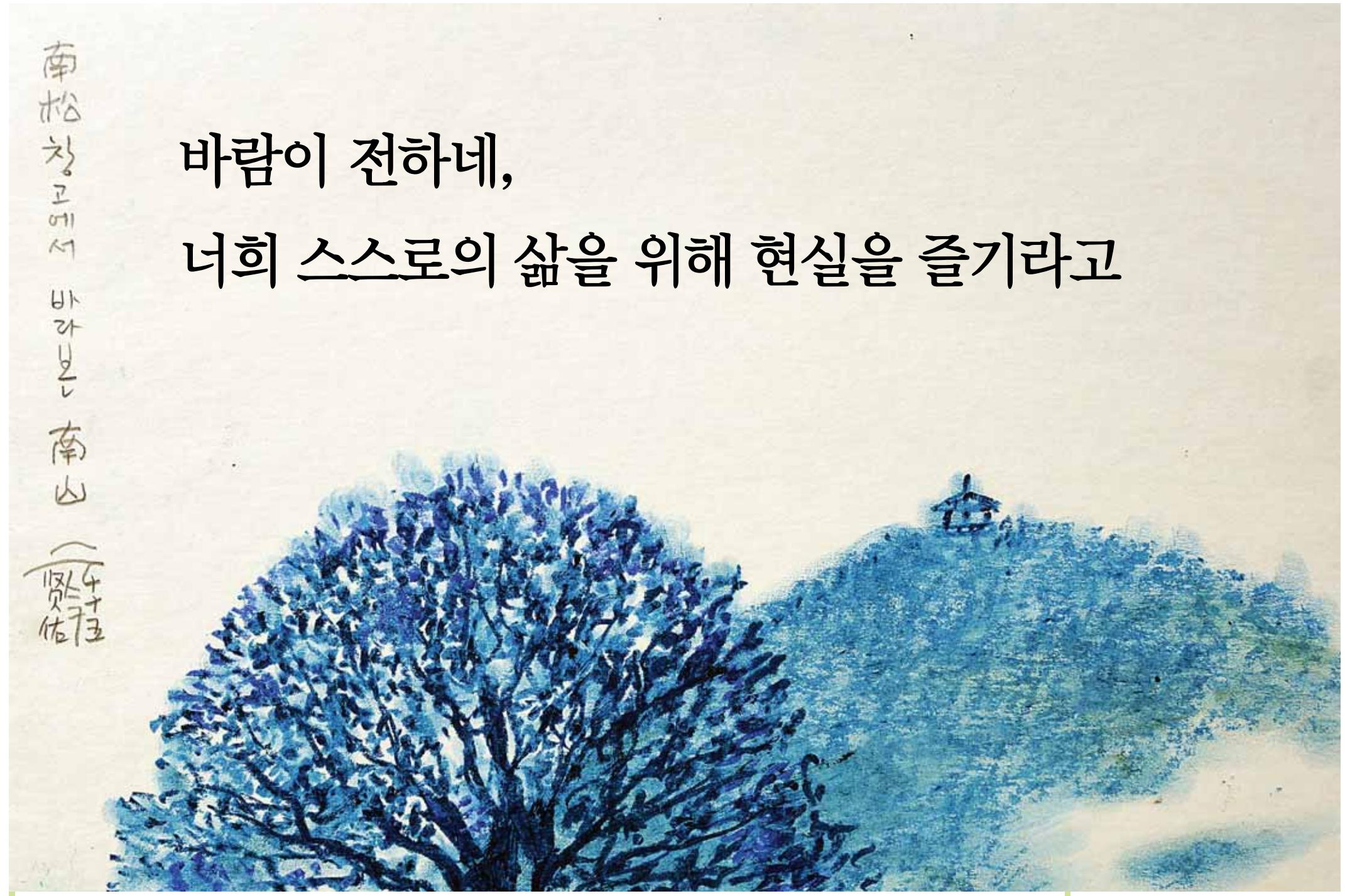




&lt;2&gt; 담양 '죽림청풍(竹林清風)' - 장현우



몇 해전부터 담양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장현우 작가는 매일 같이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고, 관방제림에서 저 멀리 남산을 바라보며 생각들을 정리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가인 골드스미스(Marshall Goldsmith) 박사는 조언한다.

오랜 고민과 지독한 삶의 무게가 시간과 덧대어져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무거운 공기와 소음들은 문명의 찌꺼기로 우리네 울타리와 서로 간 소통의 벽을 만들고 있다. 이런 스트레스 속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2009년 문화기획으로 광산구 아파트 레지던시를 조성하여 3년간 거주하다가 더 큰 목적의 꿈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다.

아무런 목적 없는 휴식이 아닌 삶 자체의 여행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혹자는 선선한 바람으로, 밤하늘의 맑디맑은 별 자리로, 흐르는 청아한 물소리로, 깊은 생각이 함께하는 오지 산마루를 위한 길을 나서지만 봇 한 자루와 종이 몇 장이면 충분한 예술가의 나섬은 공상과 의식이 덧대어진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진지함이 아닐까?

담양의 부름에 의한 나의 예술여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몇만 년 동안 알 수 없는 깊이의 고요에서 수련하다가 이제 막 빛의 눈부심으로 나와 천만리라도 뛰어들을 투명함을 간직한 물방울처럼 맑은 하늘과 공기, 오염되지 않은 죽향(竹香) 속 느린 발걸음.

길게 전후 상하(前後上下)로 뻗은 녹림(綠林), 억

지스럽지 않은 갖가지 꽃을 피워내는 흙길. 이 모든 것이 마음속 공상과 상충되어 길을 나서게 했다.

광주에서 승용차로 20분 이내 거리, 각자동에서 311번 버스로 20분 이내 거리에 담양의 죽녹원(竹綠苑)이 있다.

입구에 올라서 그 흙길을 거닐면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공상. 흥룡배우 주윤발의 와호장룡(臥虎藏龍)! 나도 몸을 가벼이 수련하여 대나무 끝 잎 새의 바람을 느껴볼까? 그 위에 발끝의 가벼움을 살며 시 포개며 뒷짐진 자신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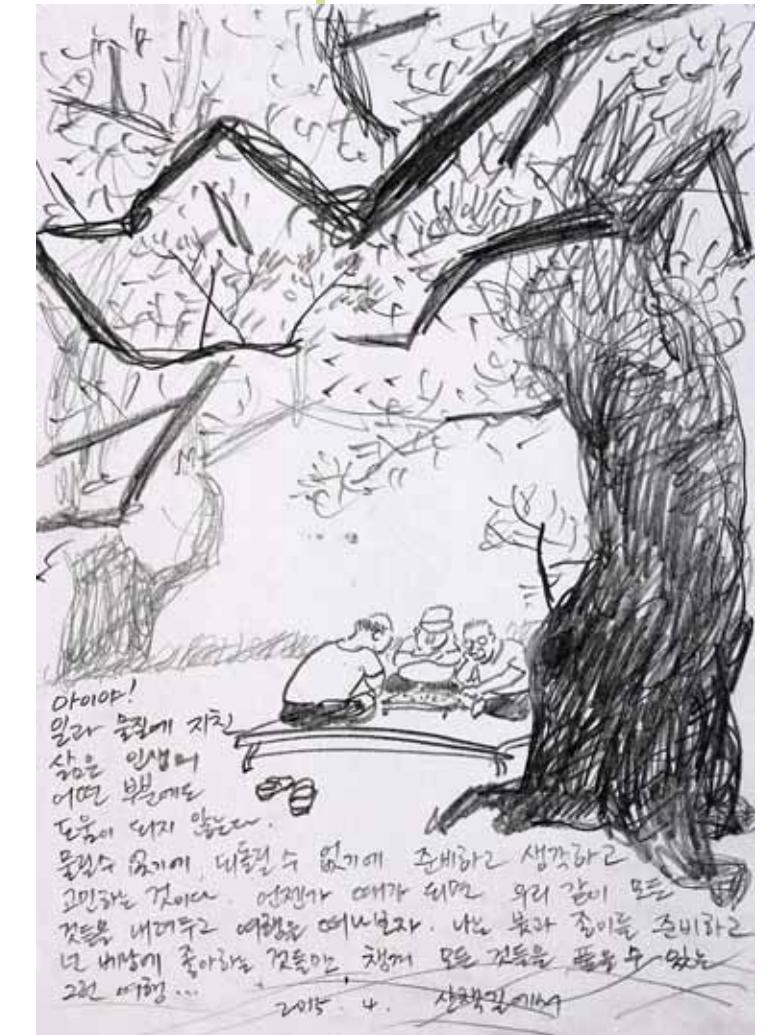
길 위에도 그 세월의 흔적을 새기며 깊은 숨을 고르는 굴곡진 균간들.

걸음마다 생명의 기운이 발길에서부터 전해지고 상쾌한 허망으로 살아난다.

그 뚝방길에선 조금이라도 짚었을 때, 종장로에 나가 짚은 시선을 탐니했던 기분과는 다른 시각이지만 건강한 짚음이 다르지 않은 즐거운 남녀의 가벼운 차림이 눈길을 집아채곤 한다.

전을 따라 걸게 이어지는 오랜 나무의 결이 나지 막하게 속삭여주는 쟁고와 일정하게 삼각형 창꼴 모서리를 하늘로 뻗은 백만 군대의 기합처럼. 메타세쿼이아 길의 바람이 전하는 말.

너희 스스로의 삶을 위한 현실을 즐겨라!



장현우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대학원 졸업. 중국로신미술학원 왕성렬 예술중심 수학.  
-개인전 17회. 국내외 그룹조대전 500여회.  
-영무에디슨 창작공간 레지던시. 북경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현재 한국미협 및 전업미술가협회 회원. 담양군 문화재단 국제예술 창작촌 총괄기획.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 062) 511-0444 |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사이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전
시공후

외벽 패턴  
필터포토박스  
컴파스온홀  
불나무  
스타일리쉬 박물학  
액션페인팅(액에필드)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